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A Bridge over Differences: Letters from Pyongyang to Seoul, from Seoul to Pyongyang

E A I 북 한 연 구 시 리 즈 3

- 편 자_ 조동호 ■ 발행일_ 2013년 6월 24일 ■ 페이지_ 204쪽
-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 가 격_ 8,000원
- ISBN_ 978-89-92395-29-8 93300
- 문 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서울과 평양, 두 도시 이야기 :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남북한의 수도 서울과 평양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담고 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건축, 경제, 대중문화, 개인의 일생, 미래상 등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하였다. 두 도시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이념, 역사, 사회, 문화 등이 응축된 공간이다. 두 도시는 서로 다른 이념과 계획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오늘의 도시 모습 또한 상당부분 다르다. 따라서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달리 나타난다.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은 평양의 도시문제들을 다루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평양이 가지는 특성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도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각기 다 있는 것이다.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는 두 도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과 평양이 서로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특징이다. 북한연구는 대체로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역사, 문화, 보건 등의 각 분야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단일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은 경제학자, 인류학자, 도시개발 및 행정전문가, 건축가, 방송 및 대중문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시각에서 서울과 평양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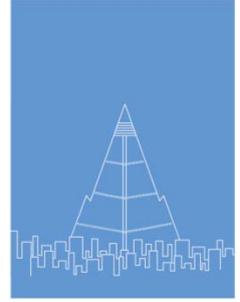
“……서울과 평양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 극단의 사상이 투영된 21세기의 대표적인 두 도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두 도시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통일의 시기에 보다 나은 서울, 보다 나은 평양, 나아가 보다 나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두 도시가 서로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자……”

— 서문 중에서



1장 도시 ■ 두 도시 공공영역의 상보성

서울과 평양 공공영역을 비교하면서, 도시 건축에서의 의미와 각 도시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공원, 주요 공공건물, 산림과 녹지, 공원, 광장, 주요 시설들을 짚어보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전국방위위원장의 장례식 경로를 추적한다. 두 도시의 차이점은 바꾸어 말하면 ‘상보성’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성공적인 도시 건축을 위해 두 도시는 서로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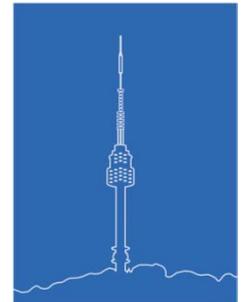


평양이
서울에게

2장 경제 ■ 서울보다 경제력 집중이 심한 도시, 평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을 유추해보면, 평양은 서울에 비해 ‘평등성’이 강조된 도시일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부의 상당 부분이 평양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미래의 평양은 여전히 북한에서 상징적 존재로 경제력 집중의 외딴 섬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3장 영화 ■ 서울과 평양, 영화 속 시선과 담론으로 본 두 도시

남북한 영화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추적한다. 비록 서로 다른 체제의 수도이지만, 두 도시는 공통적으로 지방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경”에 대한 꿈은 남북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서울, 북한의 체제 선전 무대가 된 평양, 두 도시가 가지는 차별, 위계, 소외 등의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서울이
평양에게

4장 사람 ■ 두 여자 이야기 : 생애 이야기로 본 평양, 서울 60년 서울과 평양, 두 도시를 살아 온 실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6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 여기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1943년 생 서울여자와, 1942년 생으로 만 11세에 평양으로 와서 2009년까지 줄곧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 온 평양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여자가 각기 다른 삶의 장소에서 살아왔던 지난 60년의 경험은, 곧 두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5장 미래 ■ 서울과 평양의 미래 :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은 자본주의의 원리 위에, 그리고 평양은 사회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건설된 대표 도시이다. 각기 다른 두 개의 이념과 계획에 기반하여 건설된 두 도시는 오늘날 어떠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을까? 사회양극화, 주거불안정, 지역간 발전 격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은, 사회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평양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도시가 공통으로 가지는 거대도시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목차

1장 도시

두 도시 공공영역의 상보성 ■ 이종호

2장 경제

서울보다 경제력 집중이 심한 도시, 평양 ■ 조동호

3장 영화

서울과 평양, 영화 속 시선과 담론으로 본 두 도시

■ 김현경

4장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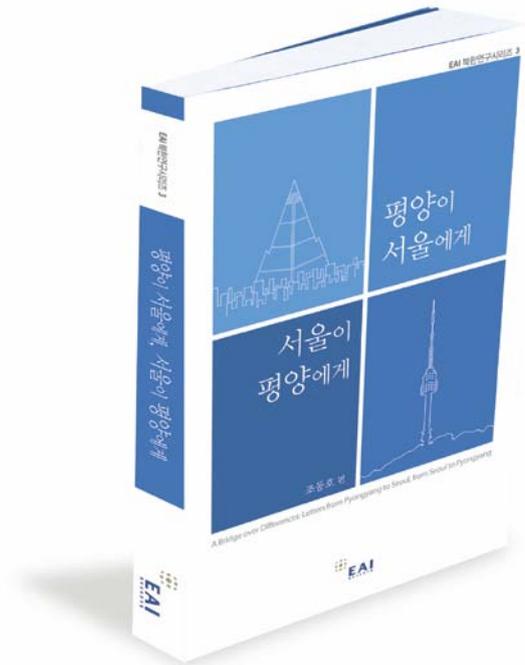
두 여자 이야기 -생애 이야기로 본 평양, 서울 60년

■ 이수정

5장 미래

서울과 평양의 미래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

■ 변창흠



필자약력

김현경 MBC 기자 및 통일방송연구소장. MBC-TV의 북한전문 프로그램인 “통일전망대”의 앵커 및 제작을 맡고 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6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하여 1989년부터 통일전망대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동시에 북한 담당 기자로 전직하였다. 10년 1개월간 통일부를 출입하는 현장 취재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 전문기자로 취재 및 제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남북회담 및 행사, 특별취재, 기획취재 등을 위해 25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행사, 핵실험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MBC 뉴스 특보에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통일전망대”와 뉴스 리포트 외에 “여기자 북한방문기 평양 10박 11일”(2001), “비화 6·15”(2005) 등의 MBC-TV 보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Mr.김정일, 차 한잔 하실까요》(한얼미디어, 2006)가 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DMC 지원연구팀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공간환경학회 운영위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거복지연구회장, 한국정책학회 부동산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희망경제정책자문위원, 서울시주택정책심의위원, 서울시도시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KBS객원 해설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사)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사)인간도시컨센서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정책과 부동산정책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공저, 한울아카데미, 2011),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위기의 부동산》(공저, 휴머니티스, 2009), 《토지문제의 새로운 이해》(공저, 박영사, 2006), 《현대 도시계획의 이해》(공역, 한울아카데미, 2004) 등이 있다.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7년 4월에서 1999년 3월까지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을 역임하였다. 분단이 만들어낸 문화와 사람, 사회갈등과 통합, 젠더 이슈 등에 관심이 많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2012 통일의식조사》(공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2), 《한국사회문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일조각, 2012), “다문화주의와 통일담론”(〈한반도통일론의재구상〉, 2012), “6·25 전쟁과기억의정치 : ‘강변사건’을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회〉, 2011), “국가 판타지와 가족의 굴레 : 월북자 가족의 남한 국민 되기”(〈비교문화연구〉, 2010) 등이 있다.

이종호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동교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박수근 미술관, 이순신 기념관, 노근리 기념관 등 사회의 기억들을 매개로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광주, 순천, 무주 등의 문화도시 연구를 주관했다. 김수근 문화상, 간축문화대상, 아천상 등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고 베니스와 광주, 부산 비엔날레의 초대작가다. 한반도의 두 도시 서울과 평양을 앞으로 상호 적극적 개방의 시대를 대비하여 그 상보성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1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 근무하면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경제포럼 회장, 조선일보 ‘아침논단’ 컬럼니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12시간의 통일이야기》(공저, 민음사, 2011),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저, 동아시아연구원, 2010), “북한경제 중국예측론의 비판적 고찰”(〈국제지역연구〉, 2008),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 가입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선택”(〈통일문제연구〉, 2008),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 남북경협 20년의 평가”(〈담론201〉, 2008)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A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EAI PUBLICATIONS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7.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8.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19.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 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 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11.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